

# 말로써 베푸는 '언시' 생활화



동산반야회  
■ 안동일 이사장



“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언시(言施)’는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

4월 말 ‘동산반야회’ 사무실은 4월 12일 열렸던 ‘동산반야회 연수원’ 잔무와 봉축맞이 행사 준비 등으로 분주했다. 최고(最古) 불교대학으로 표표사 양성 요람이 꽤 온 동산반야회의 도약에는 동산반야회 제2대 이사장인 안동일 변호사(80, 법무법인 흥익)의 역할이 지대했다.

안 이사장은 1993년 동산불교대학 3기로 인연을 맺은 후 ‘재가불자연합’과 ‘전국염불만일회’ ‘붓다클럽’ 등을 이끌고, 20여 년 넘게 조계종 법률고문을 맡아온 법조계 선지식이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명도단행 가져본’ 등 종단소송

‘(미래)자손 위한 창조적 봉사’  
좌우명으로 법조계 외길 걸어  
좋은 말은 화합과 나눔의 씨앗

과 법률상담으로 자신의 역할을 회향해왔다.

“4·19세대로서 자부심과 당시 스스로 새긴 ‘(미래)자손을 위한 창조적 봉사’ 좌우명이 저를 법조계의 수많은 세파에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하의 부정과 부패로 입담했던 시대상황에서 저는 만 20세의 서울법대생으로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4월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안동일 이사장은 “허위와 굴종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봉화를 올린 정신이 그동안 법조계에서 활동 해온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4·19에 참여한 정의감으로 수많은 변론을 해왔지만, 어려운 재판과정들이 많았다. 국선번호사로 10·26 김재규씨 변론과 KAL기 폭과 김현희씨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 이사장은 “법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법률적 용어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앞서 모든 사람은 오직 진실(Nothing but the truth)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까지 이 법인에 충실해왔다”고 자부했다.

안 이사장은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1987년 4·3호헌조치 반대 성명발표를 꼽았다. 안 이사장은 “당시 대한변협에서 공보이사로 협회지 ‘인권과 정의’ 대변인도 맡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하의 군부독재시대에 대한변협은 사회단체 중 최초로 호헌조치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반대성명 발표가

6월 항쟁의 촉진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 국회 심지어 많은 국민들까지 ‘법’을 멀게 느끼고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며 준법정신의 훼손을 우려했다.

안 이사장은 “법은 대중들의 약속으로 교통법규 등 생활 법규마저 지키지 않는 사회, 법을 만들고 이행하는 국회, 정부에서도 법을 경시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책하며,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친절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염불만일회 등에서 염불정진 하는 등 신행생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동산반야회 또한 힘든 상황이지만, 대아미타사 건립 등 재가불교의 미래가 될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보통 재가불자들은 ‘베픔’을 재시로 생각하지만, 무재 칠시를 생활화하는데서 진정한 ‘베픔’이 시작된다. 특히 ‘언시’는 불자들이 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중여전 불가경발 일입인 이 유력난발(言出如箭 不可輕發 一入人耳 有力難拔: 말이 나올 때는 화살 같아서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한번 사람에게 들어가면 힘이 있어도 빼내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 서로 화합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부처님 원음 재현에 인생 바쳐



한국배알리성전협회  
■ 전재성 회장

등을 할 수 있도록 니까야 및 초기경전 번역작업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전 박사에게는 정업을 행하는 일이다.

전 박사는 “1982년 독일 본대학에서 인도·티베트학을 공부하던 때 독일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Peter Neujahr)와의 만남에서 대단한 감동을 받았다”며 “탁발로 연명하며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페터 노이야르를 보고 부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팔리어경전을 번역하기로 발원했다”고 설명했다.

유학 당시 팔리어로 쓰인 <맛지마니까야>가 1902년에 이미 독일어로 번역돼 있던 것에서 충격을 받았던 전재성 박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시다르타>가 니까야의

20년간 초기경전 묵묵히 번역  
“각성 통해 삶의 방향 조절”  
니까야 2년내 완역 목표

영향을 받은 것에서 니까야의 한국어 번역작업을 발심했다.

전 박사는 1989년 귀국해 지금까지 몇몇 개인과 단체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홀로 역경을 진행해왔다. 여러 시행착오도 많았다. 현재 전재성 박사는 <우다나경> 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니까야의 완역을 2년 내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정업이란 무엇일까. 그는 “착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정업이라 한다면 마음이 최고의 평정 상태일 때 정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라며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울 때가 약한 상태이므로 이를 자각하고 명상 수행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니까야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요즘같이 사는데 벅차다고 느껴질 때에 전 박사는 “스스로 본인이 알아차리고 각성을 통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각자가 스스로 본인의 삶의 방향을 견고하게 만들어 마음이 맑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조언한다.

묵묵히 니까야 완역으로 부처님의 원음을 불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정진하는 전재성 박사. 불자들이 니까야를 많이 접하길 바라며 오늘도 번역을 쉬지 않는 그에게서 정업을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을 엿본다. 한국배알리성전협회 www.kptsoc.org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정어(正語: 올바른 말) - “말 한 마디라도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듯 하는 것”

정업(正業: 올바른 행동) - “정업은 본분에 충실하는 것”

## 2년여 동안의 학술 연찬을 통해 드디어 《초계총 표준 금강경》 발간!

# “이 금강경을 지니고 보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하라”

- 용화비전본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역

전국 사찰  
법보시  
주문 세도!

발간 즉시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 금강경 공부해야 대학 졸업!

경희대 한의대생 고전 20권 이상 안 읽으면 유급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고전 추천 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학생을 유급시키는 학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희대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2년 간 교수들로 이뤄진 독서지도 전문위원회의 추천 도서 100권 중 20권 이상을 읽도록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추천 도서에는 「금강경」, 「논어」 등의 동양고전과 「군주론」, 「그리스·로마 신화」 등의 서양 고전, 「자본론」,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서적 등이 포함됐다. -중앙일보 3월 16일자

# 金剛般若波羅蜜經

독송본 5,000원 | 주석본 9,000원 | 한글사경본 4,000원 | 한문사경본 4,000원 | 포켓용 3,000원

조계종출판사 02. 733. 6390